

이양지문학의 보편성

-「来意」를 중심으로-

金宣廷*
tansi@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2.2. 문학적 보편성 |
| 2. 본론 | 2.3. 「来意」에 있어 보편성 |
| 2.1. 재일한국인문학과 이양지 | 3. 결론 |

主題語: 이양지(Yang ji-Lee), 来意(Raii), 문학적 보편성(generality of literature), 다양성(diversity), 재일한국인 문학(Korean-Japanese literature)

1. 서론

이양지는 재일한국인문학계보에서 제3세대 혹은 2세대와 3세대의 연결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는 1955년 아마다시현에서 태어나서 1975년 와세다대학에 입학하고 같은 해 중퇴한다. 1980년 처음으로 한국에 온다. 그 후 1982년 서울대학교 국어군문학과에 입학하게 되며 입학수속과 동시에 휴학계를 내고 일본으로 돌아온다. 1988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한다. 1989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 석사과정에서 입학한다.

그녀는 가야금을 시작으로 한국무용도 배우게 된다. 재일한국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내적 갈등을 소리와 무용으로 풀어보고자 했다. 그녀의 소설쓰기 역시 보이기 위한 것 보다는 자신의 감정 정화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트라우마는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을 배경으로 쓰여진 초기의 「나비타령」(1982년 11월), 「해녀」(1983년 4월), 「오빠」(1983년 12월)에서는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주요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글쓰기를 통한 내면의 정화 작업이다. 이에 비해 「그림자 저쪽」(1985년 5월), 「갈색의 오후」(1985년 11월)는 재일로서 살아가는 가족 이야기 등 개인적인 이야기는 없다. 오히려 제주도 43 사건

* 신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등 정치적인 이야기가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來意」에서는 이양지가 다른 작품에서 문학적보편성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모티브로 사용했던 한국과 일본, 소리와 춤, 언어에 대한 시각,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나와 Y의 관계를 통해 나의 객관화와 나와 너의 차이 인식을 통한 개개인간의 개별성인정을 보편성의 모티브로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한 보편성 추구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재일한국인문학과 이양지

재일한국인문학의 위치를 살펴보면, 우리 국내에서는 이회성, 이양지등 몇몇 작가의 작품이 번역되었을 뿐, 대다수 작가의 작품들이 소개되지 않았다. 이는 이들 일부 작품에 있는 좌익적 성향 때문에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되어 있기에 젊은 세대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문학을 일본문학으로만 여기고 우리 문학권 밖의 것으로 도외시해 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 동포들이 발표한 이들 동포 문학은 민족성 회복을 주제로 하여 조선의 색채를 띠고 있기에 민족 문학으로 다룰만한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특히 동포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일본문학으로 귀속되는 것을 거부하여 ‘재일한국인문학’이라 부르면서, 자신들의 문학이 장래에 소멸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도 문학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러한 재일한국인문학은 일본문단에서의 일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즉 이들 재일한국인문학에 대하여 일본문단에서는 문학잡지들이 동포 작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또 일본작품으로 인정하여 문학상을 주고 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쿠타가와상의 경우만 하더라도 수상작가인 이회성, 이양지 외에도 김학영, 김석범 등 10여명의 작가가 후보에 오를 정도로 일본문단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아왔다.

재일한국인에 의한 ‘재일한국인문학’은 재일한국인 사회라고 하는 일본에 있어서의 특수한 환경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한국인 사회의 복잡한 의식구조와 변천 등의 문제가 1세 작가 김달수를 축으로 한 김 석범, 김시중, 이회성, 김학영, 양석일, 이양지, 유미리 등의 재일한국인 작가를 통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양지 전집의 자필 연보를 통해 그녀의 삶과 작품 활동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이 양지는 1955년 3월15일 李斗浩와 吳永姬의 2남 2녀 중 長女로, 아마나시 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1940년 열다섯이었을 때 제주도의 최남단에 있는 慕瑟浦(모슬포)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船員과 직물행상을 하면서 후지산 쪽에 거처를 정한다. 1964년 이양지가 아홉 살 되던 해에 부모님은 일본으로 귀화한다. 다나카요시에(田中淑枝)가 本名이었지만 良枝(요시에)라는 글자를 사용했다. 이 양지는 미성년이어서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가지게 되었지만, 당시 열여섯 살이었던 이양지의 오빠는 일본귀화에 반대했었던 것을 이 양지는 스무 살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귀화에 대한 인식은 2009년의 재일한국인 축구선수 정대세의 와세다(早稻田)대학 강연의 발표 중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들에게는 네 종류의 재일한국인이 있다. 제일 첫 번째는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주체성은 있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어느 쪽이나 부족하지만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번째는 귀화한 사람, 이라는 것이다.

이양지는 1982년 스물일곱 살 때 재외국민교육원(서울대학예비과정)을 1년 거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다. 그러나 입학수속과 동시에 휴학계를 내고 일본으로 돌아온다. 두 오빠의 죽음을 계기로 고등재판소까지 진행되고 있던 이혼 재판이 끝나고, 부모님은 정식으로 이혼한다. 서울의 하숙집에서 써서 완성한 「나비타령」을 「群像」11월호에 발표한다. 恨을 풀어낸다고 하는 무속 전통무용인 「살풀이」에 사용되는 길고 흰 수건의 이미지가 그 당시의 이양지에게 있어서는 삶의 상징이었다. 1983년 「かずきめ(가즈키메-해녀)」를 「群像」4월호에 발표한다. 「あごこぼ(아니고제-오빠)」를 같은 잡지 12월호에 발표한다. 12월에 단행본 『かずきめ』(講談社)가 발표된다. 1984년 스물아홉 살 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복학한다. 「かずきめ」의 한국어 역을 제목으로 한 『해녀』가 서울의 母音社에서 간행된다. 「刻」을 「群像」8월호에 발표한다. 1985년 2월, 이 양지 서른 살 때 단행본 『刻』(講談社)이 간행된다. 한국의 중앙일보사에서 『刻』이 간행된다. 「影絵の向こう(카게노무코-그림자 저쪽)」을 「群像」5월호에 발표한다. 「鶯色の午後(하이로노고고-갈색의 오후)」를 「群像」12월호에 발표한다. 1986년 「来意」를 「群像」5월호에 발표하고, 「青色の風(아오이로노카제)」를 「群像」12월호에 발표한다. 1987년 서른두 살 때에 한국어판 「来意(라이이)」가 도서출판 三神閣에서 간행된다. 1988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대학원에 연구생으로 1년간 다닌다. 「由熙」를 「群像」11월호에 발표한다. 1989년 서른 네 살 되던 해에 1월, 「由熙」가 제100회 芥川賞受賞作品이 된다.

이양지의 소설작품은 모두 10편이고 모두 「群像」에 발표되었다. 장편의 시 한편과 4편의 에세이가 그녀의 전집에 실려 있다. 소설작품 10편은 다음과 같다.¹⁾

- 1) 「나비타령」1982년 11월 「群像」
- 2) 「해녀」1983년 4월 「群像」
- 3) 「오빠」1983년 12월 「群像」
- 4) 「각」1984년 8월 「群像」
- 5) 「그림자 저쪽」1985년 5월 「群像」
- 6) 「갈색의 오후」1985년 11월 「群像」
- 7) 「내의(來意)」1986년 5월 「群像」
- 8) 「푸른 바람」1986년 12월 「群像」
- 9) 「유희」1988년 11월 「群像」
- 10) 「돌의 소리」1992년 8월 「群像」

이 양지는 무용과 가야금을 배웠던 것처럼 자신의 내면의 갈등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의 글쓰기였다. 이 중 「나비타령」「해녀」「오빠」의 세 작품은 이양지 초기작품으로 일본이 배경이었다. 이에 비해 「각」「그림자 저쪽」「갈색의 오후」는 한국에 나와 적극적으로 자기 찾기였던 동시에 일본에서 썼던 앞의 세 작품 보다 자신의 객관화와 그를 통한 보편성을 추구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2. 문학적 보편성

문학적 보편성을 논하기 전에 재일한국인문학은 특수한 문학이다. 경계, 이방인, 재일의식, 민족성 등 재일한국인문학의 보편성을 논하기에는 주어진 환경이 불우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국가적인 상황의 것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완결된 창조물이 아니다. 미흡한대로 부족한대로 자기반성을 통해 미흡한대로, 완전으로 향하는 것이다.²⁾

이양지의 작품 속에서 재일성이라는 특수성은 한 인간의 불우한 환경이라는 보편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에 있어 이양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계기는 이양지라는 작가도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1,2세대와 3세대를 잇는 다리역할을 했다.

1) 황봉모(2011) 『재일한국인문학』어문학사, p.300

2) 서익환(2004) 『문학적 상상력과 인식의 깊이』새미, p.2

물론 그 이전 세대의 작가들이라고 해서 문학적 보편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민족성만을 작품에 나타내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작품 속에서 민족의식 등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작품 활동의 시작은 보편성을 추구하고자 한 작가들도 있다. 예를 들면 앞서 1세대작가인 김 달수도 시가 나오야(志賀直哉, 1883-1971)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부르조아의 냄새가 짙은 志賀의 작품을 읽고 감명을 받은 것은 공통의 인간적 진실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진실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조선인, 일본인 구분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김 석범도 마찬가지다. 항상 일본어로 조선을 쓴다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자문하며 일본어로 쓴다 하더라도 조선인 작가로서 조선적 체취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석범은 『新日本文學』의 「在日朝鮮人文學について」라는 글에서 일본어가 지닌 ‘언어의呪縛’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언어가 지닌 보편적인 측면에 믿음을 둔다. 그것은 언어가 지닌 두 가지 측면, 즉 민족적인 형식으로서의 개별적인 측면 그리고 동시에 개별적인 언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요소-완전히는 아니지만 번역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재일작가가 일본어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보편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언어의 보편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이양지를 살펴보면 그녀에게는 글쓰기 자체가 수행이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만 인간 실존의 문제에 접근하게 된 작품이기도 하다. 그녀는 한국무용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기의 속성이나 자기의 삶에 대한 의문이나 고민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철저히 고집하고 직면하는 태도를 통해서만 의문과 모순으로 얽혀있는 존재 그 자체의 모습을 밝히고 풀어낼 수 있다는 하나의 진리를 저는 한국무용이 가지는 율동성과 사상성을 통해 절감해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 정신적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³⁾

라고 하고 있다.

우선 문학적 보편성을 찾고자 하는 출발점은 조국이나 일본이 아닌 문학작품 속에서 자신의 객관화, 재일의 객관화라고 생각한다.

재일한국인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논하면서 보편성에 있어서 이양지 문학을 주로 다룬 것은 제3세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양지의 작품들은 이전 세대의 작품들과 달리 강한 민족

3) 이양지(1992) 『나에게 있어서의 母國과 日本』삼신각, p.209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제일 한국인의 특수한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개인인 자신의 문제로 보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했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국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그 자체로 보편적인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來意」에 있어 보편성

이양지의 소설 「來意」는 1986년 5월 「群像」에 발표했던 작품으로 「나비타령」「해녀」「오빠」「각」「그림자적죽」「갈색의 오후」에 이어 6번째 작품이다. 한글번역본에서 주로 「Y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來意」에 대한 연구는 이양지의 다른 작품에 비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來意」에 대한 보편성을 알아보기 전에 그 이전 작품 중의 하나인 「刻」에 있어 보편성을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양지의 소설 「각」은 1984년 8월 「群像」에 발표되었던 작품으로 「나비타령」「해녀」「오빠」에 이어 4번째 작품이다. 「각」은 「나비타령」, 「해녀」에 이어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다.

윤송이는 “근대적 시·공간 경험의 해체와 탈주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양지의 「나비타령」과 「각」을 중심으로 모국체험 서사의 다층적 해석과 복합적 의미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재일조선인의 모국체험 서사가 근대화된 조국의 풍경과 어떻게 충돌하면서 해체되고 변모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당위적으로 한국과 한국어를 자신의 삶 속에 이식하려고 했던 작품 속 인물들은 몸 안에서 “시각을 쪼며”(「각」)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불안의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끝내 조국과의 접붙이기에 실패한다. 하지만 조국지향의 내면화 과정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획일적 국가이념에 의해 통제되고 규율화 된 조국, 상상의 자민족 공동체로부터의 ‘탈주’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실패’는 이양지 문학의 경계성, 탈구축성을 생성하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고 말하고 있다.

또 “‘이렇게 살고 있는 나’와 ‘저렇게 되어야 하는 나’, 이러한 실체와 희망의 사이에서 정신적 아이덴티티의 중심선이 언제나 동요하는 가운데” 재일조선인의 모국체험은 내면적 좌절과 자아의 분열이라는 외상에 노출되면서, 일본과 한국, 어디에도 적용될 수 없는 재일적 자아의 ‘예외적 존재성’을 부각 시킨다⁴⁾고 논하고 있다.

와타나베 나오키 (渡辺直紀)는 「나비타령」「해녀」에서 복잡한 장면 전개를 보여 준 이양지

는 그 다음의 단편 「오빠」(1983)와 「각」에서 그러한 장면 전개를 아예 제외해 버린 듯한 작품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등장인물에 대한 상황할 정도의 묘사는 그 인물들의 과도한 자의식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 이전의 「나비타령」 「해녀」, 이 두 작품과 비교해 볼 때 전의 두 작품에서는 주인공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작가가 이들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그러한 갈등에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내면의식의 전개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다루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이다.⁵⁾ 라고 말하고 있다. 모국 유학으로 한국에 한국어를 배우러 온 재일한국인 <나>(=李順)의 주변적인 등장인물이 몇 사람 나오는데, 그들이 모두 다<나>의 과도할 정도의 심리 묘사에 휩쓸려서 사건 전개가 거의 없어 보인다. 모국 유학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나>에게 확실히 흐르는 시간, 그 시간을 <나>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어떻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 재일 한국인인 <나>에게 이미 이국땅인 자신의 생활환경에서 자신에게 어색하게 작용해 오는 인식 대상을 바라보기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주변의 모든 인식 대상을 이미 자동화된 것도 포함해서 모두 다 다르게 보려고 하는 <나>의 집요한 시선이 이 소설의 쫓대를 이루고 있다며, 모국유학의 중심이 되는 아이덴티티의 동요가 사실은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대한 문화 차이를 절감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방법 자체, 혹은 인식하는 나를 어쩔 수 없이 인식해야 하는 데에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인칭의 저주”로 인식하는 주체를 끌어들이므로써 벗어 나갈 수 없는 <나>에 대한 물음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동요와 갈등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⁶⁾ 말하고 있다.

이양지의 소설 「각」은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유희」보다 4년 전의 작품으로 「유희」에서 유희가 한국을 사랑하고 또한 일본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안정 된 모습이었다면 「각」에서 순(順)은 모국어의 ‘~다’라는 발음도 싫어하며 일본어적 발음이라고 지적하는 국어선생님에서 선생님의 발음은 한국식이라고 생각하며 또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솔직한 모습의 순(順)으로 재일한국인의 불행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순(順)은 한국인들의 불행도 잘 묘사하고 있어 재일한국인으로서의 특수한 불행은 곧 인간 누구나가 자신의 환경에서도 처할 수 있는 보편적 불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에 있어 보편성의 모티브를 우선 생각해 보았다.

4) 윤송아(2010) 「근대적 시·공간 경험의 해체와 탈주 욕망-이양지 「각」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8집, p.185
 5) 渡辺直紀(2006) 「관계의 불안 속에서 헤매는 <삶>-이양지(1955-92)소설의 작품 세계」 『일본연구』 제6집, p.267
 6) 渡辺直紀, 앞의 책, p.268

- 1)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행복과 불행 그리고 자존감
- 2) 한 여성으로서의 생리체험과 화장의식
- 3) 재일로서의 존재감

「각」에서 순(順)은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재일한국인 2세, 3세들에게서도 존재에 대한 불행을 묘사하고 있고, 시골에서 데리고 온 하숙집의 소녀 옥숙에게서도 불행을 느끼고 있는데, 사람들이 불행한 아이라고 말하는 옥숙은 곧 불행한 자신의 처지와 나란히 대비되며 묘사하고 있다.

「순이언니, 일본에도 불쌍한 아이들은 있겠지요」

「물론, 많이 있겠죠」

「언니네 주변에도 있어요?」

그 말에 문득 나는 입을 다물었다. 불쌍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우선 나부터가 불쌍한 아이였으니까요」

이렇게 대꾸하며 어깨를 움츠려 보이자, 아주머니도 미경도 설마 그럴 리야 하는 얼굴을 하고 웃기 시작했다. 나는 생년월일조차 알지 못하는 소녀에게 선망에 가까운 감정이 이는 것을 깨달았다.

「スニオンニ(おねえさん)日本にも不幸な子供はいるんでしょう?」

「もちろん、たくさんいるんでしょうね」

「身近に知らないの?」

ふっと、私は口を噤んだ。不幸、という言葉が気になった。

「だいいち、私が不幸な子供でしょう」

そう言って肩をすくめると、アジュモニもミギョンも、まさかというような顔をして笑い出した。生年月日すらわからないという少女に、羨望に近い感情を覚えていた。7)

……이 계집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온 몸에서 풍기는 불행의 냄새는 장차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나라, 우리나라, 국가, 한국, 일본……

この少女は、今、何を思っているのだろう。全身からにおう「不幸」な匂いは、これからどんな風に変わっていくのだろう。ナラ、ウリナラ、くに、国、韓国、日本……。8)

또한 하숙집 아주머니의 뉘두리를 들으며 아주머니의 살아온 삶을 생각하며 느끼는 불행도 묘사하고 있다.

7) 『이양지전집』(講談社, 1993년 5월) p.146

8) 前掲書, p.213

「그렇고 말구. 여긴 아무리 자신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순이한테는 객지 아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돈은 규모 있게 써야 돼」

나는 수궁한다.

「지난번처럼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는 수도 있으니깐 말야」

「그때는 진짜 혼났어요. 아주머니 덕택에 살았지만요」

「평소에 조금씩 절약해서 돈을 모아두는 거야.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되니까 말이야. 순이, 내가 하는 한국말, 알아들을 수 있지?」

「네에」

「そうだよ. ここはいくら自分の国といたって、スニにとっては客地なんだから. いつ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だろう. お金は大切に使わなきゃあね」

私は、頷く。

「この間みたいに、さいふをすられてしまうことだってあるんだから」

「あの時は本当にこまったわ. アジュモニのおかげで助かりました。」

「普段から、少しずつ節約してお金を貯めておくんだよ. そうすれば何かあった時に助かるからね. スニや、私の韓国語が聞き取れるだろう?」

「ネエ(はい)」⁹⁾

……(中略)

이야기를 탄 데로 돌리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과연 아주머니는 얼굴에 온통 주름살을 지으며 신세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오십 연배의 여자로서는 몸집이 큰 편이다. 피부는 별에 그을리어 거무스름하고 손발의 뼈마디도 울퉁불퉁하다. 그때까지 몇 번이나 들어왔던 똑같은 신세타령이었다. 고생을 해온 것만은 사실이라 그것도 웬만한 고생살이가 아니었을 것은 틀림없다. 그 자기긍정의 소박함에, 속이 콕 막힐 것만 같다.

話をそらすために、そう言った。案の定、アジュモニは顔いっぱい皺を寄せ、身の上話を語り始めた。五十年配の女性としては大柄な方だ。肌は日に焼けて浅黒く、手指もごつごつとして骨張っている。それまでに何度も聞いてきた同じ身の上話だった。確かに苦勞には違いない。並たいていのことではないに違いない。しかし、私は次第に聞き続けることが苦痛になる。¹⁰⁾

작품 속의 후지타와 최고수와의 관계에 대해 유숙자는¹¹⁾ 순(順)의 애인이 공교롭게도 일본

9) 前掲書 p.159

10) 『이양지전집』(講談社, 1993년 5월), p.159

11) 유숙자(1998) 「李良枝 소설<각>에 나타나는 在日性연구」 『일본어문학』6집, p.185

인과 한국인으로 설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순(順)에게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는 모두 부정되기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후지타는 현실이고 최 교수는 애정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비슷한 또래가 아닌 나이차이가 있는 대상을 설정한 것은 유숙자의論처럼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에 비유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작품 속의 최 교수와 후지타와의 성적묘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결코 이성적으로 풀 수 없는 본능적인 근원의 문제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위행위의 묘사역시 이런 근원의 문제를 지금은 없는 최 교수나 후지타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문제로 또 의지의 문제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같이 가야금을 배우는 인숙의 불행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자신의 의지로는 바꿀 수가 없는 재일성, 혹은 生의 뿌리를 생리체험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또 작품 중간 중간 이야기의 흐름을 끊기라도 하듯 생리통에 대한 묘사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재일의 자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인숙은 「현실을 직시하는 자기극복의 서사-이양지」¹²⁾에서 주인공 순(順)에 대해 ‘순(順)이 감지하는 불행이란 재일 교포이건 아니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뚜렷한 확신 없이 불안하게 일상을 이어나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양지에게 있어서 재일이라는 존재의 불행의식은 재일 교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한 인간의 보편적 삶의 자세와 깊이 관련되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각」에서는 재일한국인이라는 불행, 즉 안방을 가득 차지하고 있던 그 불행을 순이가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통해 같은 처지의 재일한국인과 모국의 한국인 모두를 통해 그들의 불행도 보면서 자신의 불행을 조금씩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또 귀퉁이 방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불행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작품의 문학적 보편성을 살펴보았다.

「來意」는 ‘찾아온 뜻’이다. 작품의 등장인물은 나(도모히로), Y, 가즈코 세 사람이다. 작품은 도모히로가 헤어진 지 4년 만에 나타났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떠난 Y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도모히로와 Y는 4년 전, 도모히로의 친구의 개인전이 있던 갤러리에서 만났다. 그날부터 2주일 동안 Y와 동거를 한다. 그 때 도모히로는 전시회를 한 친구의 재능을 질투하며 상대적으로 패배감과 동시에 외로움, 목마름을 느끼고 있던 때였다. 그리고 2주일 동안 Y와 맺었던 그를 통해서 도모히로는 패배감과 우울함을 잊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 그림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 후 4년 동안 도모히로는 그림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었고, 3년

12) 김종희(2003) 『한민족문화권의 문학』국학자료원, p.279

전부터 가즈코와 사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Y는 갑자기 나타났고 다시 도모히로의 방을 찾았다. Y를 다시 만난 도모히로는 4년 전의 그 관계 그대로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Y는 이전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는다.

「來意」에서는 제일한국인문학으로의 특징인 가족이야기도 한국에서 겪는 유학이야기도 없다. 관계를 통해 작품을 전개해 나간다 나는 Y에게서는 두려움과 차단감을 느끼지만 가즈코에게서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즈코를 기대했다. 관계의 따사로움은 무엇보다 내게 안정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허전했다. 도대체 어디가 허전한가. 가즈코의 무엇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가, 그것을 자신도 분명히 꼬집어 말 할 수가 없었다.

愛している、だがそれ以上にわたしはかづこを頼っていた。関係の温かさは、何よりもわたしを落ち着かせた。しかし、いつもどこか物足りなかった。一体何が物足りないのか、かづこのどこがわたしにそう思わせるのか、それは自分でもはっきりと言い当てられはしなかった。13)

4년 전 처음으로 Y를 만났을 때도 그랬다. 두 주간 정확히 두 주간 나는 Y와 살았다. 그 때 나는 마음 속 어딘가 두려움이 있었다. Y와의 관계에는 위태로움을, 아니 무어라 할까, 관계라는 말이 의미하는 연결 교섭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쓸모없게 전혀 의미를 갖지 않은 듯한 그런 위태로움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물론 그 위태로움에는 미지의 자극이 있었다.

四年前、初めてYに会った時もそうだった。二週間、きっかり二週間、わたしはYと暮した。あの時もわたしは心のどこかで怯えていた。Yとの関係には危険な、いや何と言ったらいいのだろう、関係という言葉で示されるつながり、関わり、そういうこと自体がすでに無効、意味をまったく持たないようなそんな危うさを、わたしは感じていた。もちろんそこには未知の刺激があった。14)

작품에서는 제일한국인문학이라는 시선으로 보면 Y는 모국이고 가즈코는 일본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너는 어머니다. 위협하고 근접하기 어렵고 두려움 없이는 그 눈을 들여다 볼 수조차 없는 존재이면서 너는 마치 어머니 같다……

きみは母親だ。危険で、近寄りがたく、怯えずにはその目を見つめることすらできない存在でありながら、きみはまるで母親のようだ……。15)

13) 이양지(2006) 『在日文學全集』8卷, 免誠出版 p.226

14) 前掲書 p.229

두 사람은 다르다. 몸짓도 시선도 그 소리도 분위기도 두 사람은 전혀 틀리다. 비교할 수는 없다. 나는 양쪽 다 사랑한다. 나는 양쪽 다 필요하다.

二人は違う。身体つきも、その声も雰囲気も二人は全く違っている。比べられはしない。わたしはどちらも愛している。16)

도모히로는 4년 만에 만난 Y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풍선처럼 몸이 부풀어가는 Y를 보며 더 이상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똥똥해지면 그리기 어려운 거예요?

응.

Y는 소리 내어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위협이었다. 돌연 두들겨주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난 조금도 똥똥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똥똥해졌다고 하는군요. 똥똥해져서 그리기 어렵다고 당신은 좀 더 나를 볼 줄 알아야 해요.

………

그리고 싶은 나의 상이 당신 속에 없다는 것이지요.

太っていくと描きにくいの?

うん.

Yは声を立てて笑い出した。まるでそれは威嚇だった。突然、撲りつきたい衝動にかられた。わたしは少しも太ってはいないわ。なのにあなたは太ったと言っている。太ったから描きにくいと言っている。あなたはもっとわたしをみなくてはいけないのよ。

………

描きたいわたしの像が、あなたの中にないということよ。17)

결국 Y는 떠난다. Y가 떠난 후 도모히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Y의 마지막 한 장 남은 Y의 데생을 보며 Y에 대한 단편적이었던 자신의 감정에 대해 반성한다.

Y, 눈에 비치는 너의 모습밖에 볼 수 없었던 나는 늘어지고 부풀어 가는 너의 몸의 선에만 정신이 팔려 나와와 관계가 너를 비대하게 하고 동녀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었다. Y, 目に映るきみの姿しかみ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わたしは、弛み、ふくらんでいきみの身体の線にばかり気を取られ、わたしとの関係がきみを太らせ、童女のようにしていくのだと独り合点していた18)

15) 이양지(2006) 『在日文學全集』8卷, 免誠出版 p.240

16) 前掲書 p.237

17) 前掲書 p.259

Y와 가즈코와의 관계를 통해 도모히로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된 것이다. 타자는 타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와의 관계를 통해 타자의 상이 나의 내면에 형성되고 비로소 나의 시선에 비치는 즉 나와 관계하는 타자로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나를 바로 보고 나를 이해하고 응시하는 힘이 강조되고 있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는 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응시하는 힘을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은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상황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 자신의 상황은 배제시키고 보편적 인간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來意」에서는 보편성의 모티브로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분석해 보았다. 「來意」보다 2년 전의 작품인 「각」에서 순(順)은 모국어의 ‘~다’라는 발음도 싫어하며 일본식 발음이라고 지적하는 국어선생님에서 선생님의 발음은 한국식이라고 생각하며 또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솔직한 모습의 순(順)으로 재일한국인의 불행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순(順)은 한국인들의 불행도 잘 묘사하고 있어 재일한국인으로서의 특수한 불행은 곧 인간 누구나가 자신의 환경에서도 처할 수 있는 보편적 불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룬 「來意」에서는 이양지의 이전의 작품들처럼 가족이야기도 한국유학생들도 재일한국인을 괴롭히는 일본인도 또 재일한국인을 반일본인 취급하는 한국인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Y와 가즈코라는 두 인물이 도모히로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두 가지 성향의 마음을 통해 관계의 진정성을 위해서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 주고 있다.

도모히로는 인간에게나 그림에게나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다. Y와 가즈코에게 걸모양으로서의 자신을 보여 왔고 그도 그들의 걸모습만을 좇아왔던 것이다. 또한 그림에 대해서도 그리고 싶고 그리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을 들여다보며 그림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상(像)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Y를 통해서 도모히로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하고 그 깊이 있는 시선으로 상대를 볼 때에 그 상대에 대해 이기적이지 않은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인간 누구나가 느끼는 내면의 복잡함, 단순히 선과 악이 아닌 인간관계를 통한 내면묘사를 도모히로를 통해 보편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18) 이양지(2006) 『在日文學全集』8卷, 免誠出版 p.230

【參考文獻】

- 김종희(2003) 『한민족문화권의 문학』국학자료원
박상진(2010) 『비동일화의 지평』고려대학교출판부
서익환(2004) 『문학적 상상력과 인식의 깊이』새미
이양지(2006) 『在日文學全集』8券, 免誠出版
이양지(1989) 『由熙』삼신각
황봉모(2011) 『재일한국인문학』어문학사

논문투고일 : 2012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7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25일

〈要旨〉

이양지문학의 보편성

재일한국인문학에 있어서 민족성이나 재일성은 재일한국인 문학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문학전반에서 보았을 때, 재일한국인문학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재일한국인 문학의 ‘조선적인 것’, ‘민족적인 것’이라고 하는 재일한국인문학의 특수성에 대비해서, ‘자아’, ‘실존’의 표출을 보편적인 것이라고 규정해 보았다. 그리고, 재일 1,2세대와 3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양지의 「來意」를 중심으로 「문학적 보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재일한국인문학의 문학적 보편성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주로 이양지의 작품을 살펴본 계기는 이양지의 작품은 재일한국인 의 특수한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개인인 자기 자신의 문제로 보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려고 하고 있다. 이 자체로 보편적인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刻」에서는 재일한국인이라고 하는 불행을 순이의 한국유학생회를 통해서 표면에 나타내고 있다. 「刻」에 있어서 보편성의 모티브는 인간 그 자체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자존감, 재일로서의 존재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2년 뒤의 작품인 「來意」에서는 Y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주인공 도모히로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깊이 있는 시선으로 상대를 볼 때에 그 상대에 대해 이기적이지 않은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인간 누구나가 느끼는 내면의 복잡함, 단순히 선과 악이 아닌 인간관계를 통한 내면묘사를 도모히로를 통해 보편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Generality of Korean-Japanese literature
-Focued on the 「Raii」 of Yang ji-Lee-**

Though the ethnicity and nature of Korean-Japanese is the universal thing in Korean-Japanese literature, these in might be called a peculiarity in general literature. The author resolve things of chosun and ethnic in Korean-Japanese in addition to the generality. 「Raii」 of Yang ji-Lee that bridge 1st and 2nd and 3rd generation of Korean-Japanese was explored in view of literary universality. Literary works of Yang ji-Lee called the 3rd generation literature are dealing with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Korean-Japanese, but these are regarded as individual things and no one even gets out of the situation. They accept themselves just rather deny the home country so her works reach the road of universal lirtature. Eventually, in the work of 「Gak」 the Japan-Korean unhappiness which was located deep in the heart shows slightly through Suni's student life in Korea.

Peculiarity of Korean-Japanese in Yang ji-Lee's work is seen as universal view of man misfortune environment. So the motive of universality in 「Gak」 is shown as human happiness and unhappiness oneself, a woman's physiological and make-up experience, existing of Korean-Japanese etc.

But, 「Raii」is looking for universality through human-relationship of character.